



그 놈, 참 시원하겠습니다. 개팔자 상팔자라고 하는 말, 이럴 때도 통하는 말일까요.

나주를 지나면서 주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개를 만났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주인 등에 발을 올리고 가는 품이 자연스럽기 까지 합니다. 많이 타본 솜씨입니다. 주인도 어깨를 끌끌이 펴 바람을 막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가 행여 다칠까 천천히 운전을 하더군요. '복날'이 들어 있는 요즘 주인 눈치보고, 이상한 사람들을 피해다니는 개들에 비하면 주인 잘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지극히 주인의 손과 밭이 되어 줬으면 이런 대우를 받을까요.

애완견 전용 카페와 호텔을 다니고

전용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는 일부 호화 애완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개팔자 부려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 농촌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들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도시로 떠나 버린 뒷속에 농촌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뿐입니다.

외롭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친구이자 자식이 되어주는 것이 개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처럼 끔찍이 사랑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헬멧 안 쓴 강아지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닐까요. 또 동물애호가들은 아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위작령기자 jrw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박지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나는 매년 30명이 넘는 아들, 딸들을 가슴으로 키워내야 하는 교직의 길을 4년째 가고 있다. 올해도 역시 나만큼이나 덩치가 큰 16명의 아들과 딸 사춘기에 접어들어 새침데기 같은 14명의 딸들을 어미 닉이 부화를 위해 일을 품듯 열파성을 다해 마음으로 품어가고 있다.

교직에 첫 발을 내딛었던 4년 전, 지금의 6학년 아

감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솔직히 처음 몇 번은 벽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나에게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아이에게 나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다른 선생님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믿고 있단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1년 동안 잘 키워 중학교에 잘 입학시킬 거야. 우리 서로 잘해보자"며 내 믿음을 계속 표현해 주었다. 그 아이는 나의 이런 표현들을 어색해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관심, 변함없는 나의 믿음을 그 아이도 알아주는 듯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 늘 남아서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숙제도 잘해오며 수업시간 학습 태도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반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져 갔다.

얼마 전 열린 6학년 반 대항 축구 시합을 준비하며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이들이 3학년이었을 때 초임의 열정으로 내 평생 잊지 못할 1년을 함께 했던 아이들이었기에 올해는 주지 없이 6학년을 맡겠다고 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모여 반 아이들을 정하는 날, 묘한 설레임과 떨림으로 4개의 봉투를 둘 중 마지막으로 남은 1개의 봉투를 선택했다. 봉투 안에 들어 있는 30명의 이름들을 쭉 훑어보는 순간 나는 한 아이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정서가 매우 불안했고 이야기를 나눌 때 눈맞춤(eye-contact)도 되지 않았고 장난도 매우 심하여 늘 반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아이다.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여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갖다가 작년 2학기以來 다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터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 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남학생들은 이 아이를 은근히 무시하며 학부로 대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자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짹꿍을 하는 것을 꺼려하며 인상을 짜푸리기 일쑤였다. 우리 반 아이들의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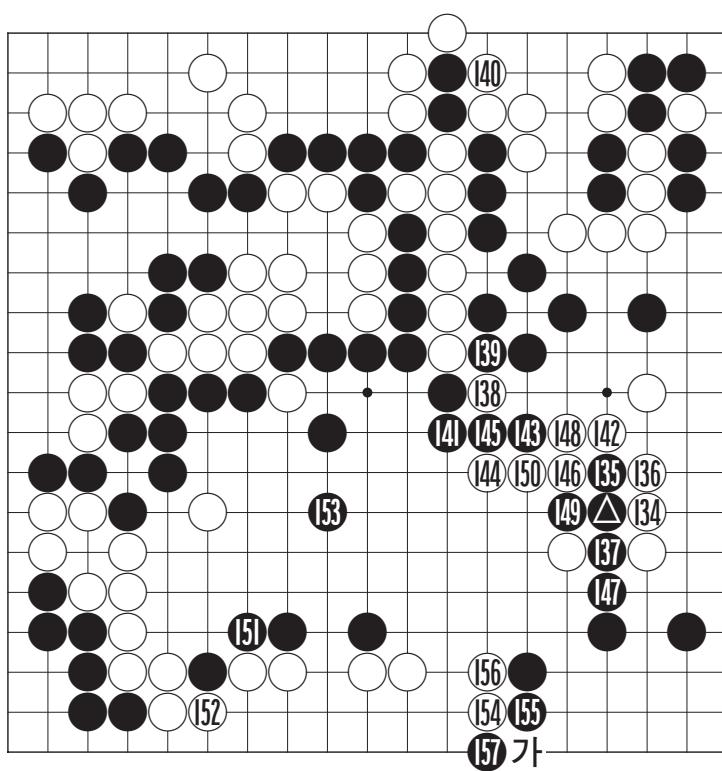
포지션을 정하면서도 우리 반 남학생들은 축구 연습을 할 때 공격수들이 찬 공들을 몸을 날려 잡아내는 그 아이의 모습을 칭찬하며 이 아이를 골키퍼로 넣자고 했다. 그 아이가 열심히 뛰어준 탓에 팀 전력상 다른 반에 비해 약했던 우리 반은 준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국어 시간 원son 잡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바르게 이해하자는 주장이 담긴 글을 학습한 뒤 혹시 이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편견을 가졌던 경험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와 한 달간 짹을 했던 여학생이 일어나 "처음에 ○○이와 함께 애게 되었을 때 장난도 심하고 공부도 못하며 옛날에 따돌림을 당했던 아이라 같이 애기가 없었는데 막상 짹꿍을 해보니, 재미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남학생들도 봤던 아이였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

내가 했던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이 아이와 짹을 했던 여학생의 발표를 통해 우리 반 아이들은 더욱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으리라.

차츰 마음을 문을 열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 참 행복한 교사다.

<나주영산포초등학교 교사>



제16회 광주일보

직장대행
단체 4회전

완벽한 승리 8보(134~157)

白 유병수 5단
(포스코)
黑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A)

종양의 백 대마가 크게 잡혀 사실상 승부는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국면이다. 유병수 5단도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

유흥주 5단은 뜻노래를 부르며 더욱 준엄하게 흑▲로 우연 백을 압박해 들어간다. 형세가 유리하다고 무작정 몸조심만 하기 보다는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국면을 좁히는 길이요 승리의 철경이다.

백 134, 136으로 두지 않을 수 없을 때 137로 끊어 모든 변수는 사라졌다. 유흥주 5단의 의도대로 국면이 지극히 단순해져 흑의 승리가 확실해진 것이다.

백 144부터는 유병수 5단이 던질

곳을 찾기위해 두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승부에 대한 긴장감은 없어졌다.

흑 151로 누르고 153으로 지킨 것

이 던질 곳을 재촉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유병수 5단도 156까지 두어보

다가 흑 157을 보더니 순순히 향서를 쓴다. 흑 157은 백이 반대로 '가'로 젓

히는 것과 비교해 역끌내기 4집짜리로 무엇보다 시급한 곳이다. 유흥주 5단이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한 판

이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T 교보생명

바둑소식

日 장수, 기성전 2연승

일본의 장수 9단이 최근 쿠마모토시에서 열린 제32기 일본 기성전 도전 5번기 2국에서 도전자 요코타 시게아키 9단을 329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흑 6집반으로 따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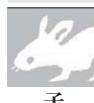
장수 9단은 남은 국내에서 1승을 추가할 경우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섰다. 장수 9단은 올해 도요타 준우승에 이어 NEC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지난해 부진을 털고 기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요코타 9단은 제49기 관서기원 1위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도전자 결승전에서 고노린 9단을 꺾고 도전권을 따냈다. 도전 3국은 오는 8월 9일 열린다.

<윤경기자 penfoo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음 6월 11일己未)



36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48년생 아내가 흐드러지니 아내를 살펴보라. 60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2년생 자녀는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84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7:45



37년생 바리바리 일이 꼭 이루어진다. 49년생 수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다. 61년생 양반 보기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73년생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85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3:26



38년생 숨이 가쁜 하루다. 50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62년생 할 일을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74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09:40



39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라. 51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63년생 도움을 주면 달은 그 이상이다. 7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처리하라. 87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7:25



40년생 나이는 수자일 뿐 용감하게 진행하라. 52년생 뇌로 주고 받은 활동을 많이 하라. 64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76년생 오전은 흥하고 오후는 길하다.
행운의 숫자 : 21:38



41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3년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거워하라. 65년생 전리 길도 한걸음 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77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4:29



42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면 실패다. 54년생 부부간의 주정한 시간을 마련해 보라. 66년생 아내의 고민에 생각해 보고 대화를 해보라. 78년생 주변의 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해보라.
행운의 숫자 : 05:20



43년생 자신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리라. 55년생 친한 사람을 알보자 미라 종한 일이 생긴다. 67년생 춤주고 노래를 하니 즐겁기만 한다. 79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니고 생각해 하자마자.
행운의 숫자 : 03:12



44년생 오해에 화재를 주의하라. 56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자. 68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심상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80년생 속 티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1:35



45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57년생 오늘은 문단을 풀어서 절해야 하리라. 69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형편의 안정을 위하여하라. 81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4:44



46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라. 58년생 막다툼은 시비로 비화되니 피해야 한다. 70년생 시비는 화제로 처리하려면 하루 빨리 끝내기의 문제를 쓰라. 82년생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40



47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으나 기본은 미리하라. 59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하면 대재가 생긴다. 71년생 외래내에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3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수가 광안해리라.
행운의 숫자 : 01:38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54>

Who's calling, please?

실례지만 누구시죠?

A : Hello.

B : Hello. Is Mr. Wilson in?

A : No, I'm afraid he's out at the moment. Who's calling, please?

B : This is Miss Hoffman of Smith's Pharmacy.

A : 예보세요?

B : 안녕하세요, Wilson선생님 계십니까?

A : 안계신데요, 외출하셨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B : 저는 Smith약국의 Hoffman입니다.

* Who's calling, please?

= Who's this, please?

* Is Mr. Wilson in?

= May I speak to Mr. Wilson?

* at the moment : 현재

* 그분이 돌아오시면, 그 분에게 전화 드리도록 말씀드릴까요?

= Shall I have him call you when he gets back?

오하요우 니혼고 <954>

後(あと)でしちゃ駄目(だめ)。

나중에 하면 안 돼?